

도교육청 '초등생 오후 3시 하교' 반대

김승환 교육감 "저출산·고령사회 책임을 학교교육에 다 떠넘겨"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최근 초등학교 1~4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교육감은 1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수업시작과 끝나는 시각을 결정하는 것은 학

교장의 권한"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3시 하교' 의견은 법률 위반이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사회를 지나 초저출산·초고령사회로 빠져드는 원인이 학교교육에 있는 게 아닌데도 위원회의 이 의견은 그 책임을 다 학교교육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청년실업은 해결될 길이 없고, 보육과 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은 계속 가중되고 있으며 생활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지금 수도권 청년들은 결혼하려고 해도 살 집이 없다"면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나 대책은 전혀 없이 학교교육에만 모든 걸 떠넘겨버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의견은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학교만 괴롭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게 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어떤 의견도 우리 전북교육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김재훈 기자



무주교육지원청이 최근 관내 고등학생들과 고려인 학생들이 함께하는 '남대천 생태탐사'를 진행했다.

무주군 고등학생, 고려인 청소년과 남대천 줄기 따라 2박 3일간 생태탐사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반진수)이 최근 관내 고등학생들과 고려인(러시아 교포 4~5세) 학생들이 함께하는 '남대천 생태탐사'를 진행했다.

이번 생태탐사는 2박 3일 동안 무주군 관내 고등학생들이 남대천의 발원지라 불리는 무풍 덕지리 도마령에서

출발해 남대천 줄기를 따라 40여km를 걸으며 무주의 생태환경을 관찰하는 행사로 마련되었다.

이들은 8월 8일 저녁, 당일 입국한 고려인 청소년들과 태권도원에서 만남의 자리를 가졌으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밝은 얼굴

로 서로에 대해 알아나갔다. 특히 생태탐사 2일차에는 무주 청소년들과 고려인 청소년들이 한 조를 이루어 생태탐사를 진행하여 친밀감을 높여 나갈 수 있었으며, 저녁에는 모두가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과 대동놀이를 진행하며 따뜻한 우정을 나누었다.

무주교육지원청 반진수 교육장은 "이번 교류행사는 학생들이 남대천의 생태환경을 알아보고 애항심을 함양함과 동시에, 우리 민족의 강제 이주의 역사와 아픔을 느끼고, 나아가 세계시민의식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대, 호남지역 입학사정관 공동연수 실시

정보 공유·협업체계 구축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는 13일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호남지역 대학-고교 간 대입전형 관련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호남지역 입학사정관 공동연수'를 실시했다.

전북대를 비롯한 전남대, 조선대, 순천대 등 호남지역 4개 대학 입학사정관 및 입학관계자, 고교 교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입학업무 관계자 연합교육을 통

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입학사정관 전문성 및 핵심역량 강화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동연수에서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입시제도의 변화', '전문가로서의 입학사정관의 윤리와 직무', '다양한 교육적 배경의 지원자와 대입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인성평가 운영 사례' 등이 발제 및 토론의

주제로 올라 열린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박영호 서울과학기술대 입학전형팀장의 '학생부종합전형 인성평가 운영사례' 및 이병성 국민대 입학사정관과 이성준 서울시립대 책임입학사정관이 발표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자료 운영사례'는 참석한 고교 교사 및 다른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많은 질문과 토론이 펼쳐졌다. /김재훈 기자



13일 오전 전북대 진수당에서 외국인 어학연수생들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다.

전북대, 한국어 말하기대회 개최

한국의 첫인상, 한국의 숨겨진 매력 등 경험 발표

"많은 도시 중 전주가 바로 한국의 숨은 매력이라고 믿고 있어요. 전주가 전통적 한국과 현대적 한국이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13일 오전 전북대 진수당에서는 외국인 어학연수생들이 모여 미숙하지만 한국 생활에서 느낀 생각들을 자신감 있게 발표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다.

전북대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처음 기획한 대회다.

이날 말하기 대회는 약 400명의 전북대 언어교육부 한국어 연수생들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13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한국의 첫인상, 내가 알고 싶은 한국사람, 한국의 숨겨진 매력'라는 주제로 한국인, 한국 문화와 한국 사회 등에 대해 경험하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배우고 익힌 한국어 실력을 뽐냈다. 행사

에서는 한국어 말하기대회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댄스와 노래 공연 등 장기자랑을 비롯하여, 한국어 선생님들의 장기자랑도 마련되어 열기를 더했다.

대상은 5급에 재학 중인 조지아에서 온 마차비리아니 아나 학생이 수상했다. 아나 학생은 '한국의 숨겨진 매력, 전주'라는 주제로 전주에서 느낀 매력에 대해 발표해 내용과 표현력, 발음, 태도, 호응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나 학생은 "전주에서 6개월을 생활하면서 엄마뻘처럼 포근한 정을 느낄 수 있었으며, 드라마가 아닌 실제 소탈한 사람들의 웃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한국의 옛 모습과 발전된 현재를 볼 수 있는 전주야말로 한국의 숨은 매력 아닐까 생각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한편,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장학금이 수여됐다. /김재훈 기자

장영달 우석대학교 총장, 조총련 산하 조선대학교 방문

우석대학교 장영달 총장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산하 조선대학교를 공식 방문한다.



가도 받은 상태다.

장 총장을 비롯한 우석대 방문단은 조선대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대학 관계자들을 만나 국제교류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총련 산하 조선대는 북한의 유일한 해외 교포 대학으로 1956년 4월 10일 설립됐다. 현재 4년제 학부과정과 2·3년제 단기학부,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